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4, 2023

논 문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UCCN 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
남기범

도시 문화생태계에 대한 유럽의 관점
실비아 아만

우리의 실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역문화 거버넌스 ‘공유성복원탁회의’라는 실험
권경우

문화생태계 조성: 2019 유럽 문화 수도 마테라의 경험
로젤라 타란티노

문화생태계의 활성화와 지역 국립 박물관의 역할
장상훈

문화적 권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
“문화21 플러스”
마르타 요베트

문화생태계의 활성화와 지역 국립 박물관의 역할

장상훈*

초 록

지역에 위치한 국립박물관들은 삶의 보편성 위에서 지역 특유의 색깔을 입은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여 드러내고 그것이 오늘날 지역민의 삶과 그들의 필요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고객의 다양한 관심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립박물관은 박물관 접근성의 지속적 향상, 박물관 학습 경험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 증대를 모색함으로써 지역 문화생태계의 활성화라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국립박물관은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키워드: 정체성, 접근성, 학습, 포럼, 소통

* 장상훈은 국립진주박물관의 관장이다. 영국 University of Leicester 박물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사하여 전시과장, 어린이박물관 과장을 거쳤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한국고지도연구학회 부회장이다. 지도예찬: 조선지도 500년, 공간·시간·인간의 이야기, 박물관에서 대동여지도를 만나다, 김재원 국립박물관 초대 관장 영문편지를 저술했고, 한국 고지도의 역사, 메트로폴리스:지도로 본 도시의 역사 등의 역사를 펴냈다. A Representation of Nationhood in the Museum (2020)이 그의 대표 저서이다.

머리말

국립박물관은 국가나 지역 단위 문화 인프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문화생태계의 활성화에 국립박물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한국 국립박물관의 기존 관행에 되짚어 볼 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곧 서울의 본관을 비롯하여 전국 13개 도시에 분관을 두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실제 지역 문화 생태계의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냉철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 연구, 전시, 교육이라는 박물관의 임무 설정 자체가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이라는 과제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국제박물관협회(ICOM)는 박물관을 재정의하여 박물관이 자리 잡은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길을 잡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제박물관협회의 주장은 박물관이 그저 지역 전통문화의 명맥을 유지하고 호흡을 유지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포용적인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물관이 문화생태계 활성화의 동력이 되기 위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먼저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발전이라고 하는 국립 박물관의 임무에서 그 문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전통문화가 오늘날 갖는, 또는 가져야 하는 의미는 어떤 관점에서 확보해야 하는지, 나아가 그러한 전통문화가 오늘의 삶과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 위에서 국립박물관이 단위 지역 안에서 이제까지 해온 역할과 그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 국립박물관이 지역 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필요와 과제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전통문화가 우리의 삶과 사회에 유의미하고 또한 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그 의미와 가치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1. 지역국립박물관의 활동과 그 한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은 지역에 분관을 설치하여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제10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1945년 설립 이래 오늘날까지 서울 이외의 지역 도시 13곳에 분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국립민속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의 지역 분관 설립은 지지 부진한 실정이다.**



그림 1. 국립진주박물관

-
- 1. 국립중앙박물관은 1945년 설립 당시에 경주 분관과 부여 분관을 두고 있었고, 개성부립박물관과 공주박물관을 1946년까지 지역 분관 조직으로 흡수했으며, 이후 광주(1978), 진주(1984), 청주(1987), 전주(1990), 대구(1994), 김해(1998), 제주(2001), 춘천(2002), 나주(2013), 익산(2015)에 분관을 설치했다. 2026년에 충주에 분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 2. 국립현대미술관은 2018년 청주에 미술품수장센터라는 이름의 수장고를 설치했고 이 시설을 일종의 분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대전 분관의 설립도 추진 중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21년 경기도 파주에 수장고를 설치했다. 이처럼 수장고 건립을 명분으로 지역 분관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은 그만큼 분관 설치의 사업 타당성을 관계 정부 당국에 설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시사한다.

지역 조직들은 해당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치중해왔다. 이 중 경주, 부여, 공주, 김해, 나주, 익산 등은 古都에 입지한 박물관들로 신라, 백제, 가야, 마한 등 고대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집중하고 있고, 광주(도자문화), 전주(선비문화), 대구(복식문화), 청주(금속공예), 제주(도서문화), 춘천(유람문화) 등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에 입지한 박물관들은 지역의 전통문화나 산업적 특성에 주목한 특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편 임진왜란 진주대첩의 현장에 입지한 진주박물관은 임진왜란 사에 주목해 왔고 이제 시야를 넓혀 전통 시대의 전쟁 외교 전반을 다루는 전문 박물관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다른 국립 박물관 조직에 비해 국립중앙박물관이 꾸준히 지역 조직을 확대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해온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 한계도 분명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태생부터 서구 근대박물관의 전통 위에서 고고학과 미술사 중심의 박물관으로 성장했기에 이외 학문 분야



그림 2. 국립진주박물관

나 근현대 시기의 문화양상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학문 분야로는 역사나 민속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고, 시기적으로는 근대나 현대에 대한 주목이 적은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을 제외하면 해당 지역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지역 문화의 보편성과 연결되는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소장품 수집, 조사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의 제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일정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제기된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대한민국역사관, 국립한글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시기를 담당하는 전문 국립박물관 인프라가 갖추어진 서울에 비해, 박물관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비 서울 지역 국립박물관이 담당해야 할 분야와 시대가 훨씬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 수도권 지역 국립박물관의 역할은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들 박물관은 해당 박물관의 특성화된 콘텐츠를 좀 더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에 더해 좀 더 근본적인 것이 해당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정확히 도출해서 드러내는 일이다. 흔히 지역의 “역사와 문화”라는 개념 안에 포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지역 분관들이 특성화 사업을 모색해야 했던 출발점을 따라가자면 이러한 지역 문화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던 점과 관련이 있다.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고고학상이나 중근세 미술 문화 속에서 지역별 특성을 잡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역 문화의 내용을 시기적으로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넓히고 나서, 그 시공간을 살았던 지역민의 삶과 사회를 그 주변 지역(또는 중앙정부)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살핀다면 해당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박물관 콘텐츠로 만드는 일이 좀 더 용이했을 것이다. 이 경우 박물관의 콘텐츠를 그저 전통문화라고 하는 범주, 곧 과거에서만 찾아야 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교두보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문화생태계의 활성화라는 과제와 연결시켜 보면 박물관의 관심이 과거의 전통문화에만 머무는 것은 곧 한계에 부딪힐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 굳이 法古創新이나 溫故知新이라는 격언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과거의 문화가 오늘날의 사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문화는 과연 어떤 소원과 바람과 기대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은 나와 우리의 소원과 바람과 기대와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은 왜 그러한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박물관의 다양한 사업에 적용시켜 본다면 지역 문화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 문화생태계 속에서 지역 국립박물관의 역할과 과제

국립중앙박물관은 1986년 구 중앙청 청사로 이전하여 재개관하는 것을 계기로 사회교육의 필요성³에 주목하고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본격화했다. 전시 활동 이외에 대중들에게 박물관 콘텐츠를 보급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 국립박물관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파급되어 어린이 및 청소년,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⁴ 전시 관람, 강의, 답사, 체험, 실습 등 다양한 형식의 여러 프로그램이 전통문화를 소재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의 중심 문화인프라인 국립박물관이 해당 지역의 핵심 문화센터로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갖게 된다. 과거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전통문화가 오늘의 문화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한때 민족주의 이념의 전성기에 전통문화는 민족문화 담론을 매개로 공동체에 자긍심을 부여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전통문화의 이러한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역 문화 단위로 내려오게 되면 이러한 역할은 상대적으로 빛이 바랜다. 지역의 색깔과 특성을 드러내는 데서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이

3. 1982년 12월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다.

4. 단, 국립경주박물관의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는 6·25 전쟁 정전 직후인 1954년에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다.

결국 삶의 보편성 위에 지역 특유의 색깔을 입은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잘 확인하여 드러내고 그것이 오늘날 지역민의 삶과 고민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그 지역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주목하고 그의 바람과 기대와 소망 속에서 지역 문화를 인식하고 표현하고 창조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2022년 8월 국제박물관협회가 내놓은 새로운 박물관 정의는 이러한 맥락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박물관은 유무형 유산을 연구·수집·보존·해석 전시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 영구기관이다. 박물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 이용하기 쉽고 포용적이어서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 박물관은 공동체의 참여로 윤리적, 전문적으로 소통하며, 교육·향유·성찰·지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지역 국립박물관은 인류고금의 다양한 문화 활동의 물질적 증거인 문화유산을 매개로 현대인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수용할 복합 문화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이 다루는 콘텐츠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박물관이 다루는 분야 또한 삶과 사회의 모든 부면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 성별, 학력, 인종,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고객의 다양한 관심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려 위에 문화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국립박물관의 역할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살피고자 한다.

접근성의 확대

박물관이 문화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박물관은 소장품과 그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박물관은 이러한 접근성이라는 사안을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접근성이라는 개념은 박물관의 전시실, 교육실 등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 가지는 모든 유무형의 콘텐츠에 대한 막힘없는 접근과 활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콘텐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이는 박물관 평가의 주요 지표가 되어야 한다.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관점에서 박물관 방문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포용적 박물관을 추구할 것을 권고한다. 곧 박물관 방문자의 다양성을 물리적 차원(계층, 지역, 가족, 환경), 신체적 차원(연령, 인종, 성별, 장애 유무, 지적 특성), 상징적 차원(문화, 언어, 젠더, 가족, 친화력, 성격)에서 파악하고, 이들의 박물관 접근성을 다양한 참여 방식과 다양한 전달방식을 통해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물관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문제는 박물관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현안이다. 더욱이 급속히 세계화와 다민족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온 이주민이 다수 밀집한 곳에 위치한 박물관은 한글과 영어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능한 범위에서부터 다수 이주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차 이들을 박물관 사용자로 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신체적 장애를 갖는 장애인이 박물관과 그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에서 물리적 한계를 갖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객 친화적인 자세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경우에도 박물관 이용자는 그가 환영받고 있으며, 원하는 적절한 서비스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물관에 대한 접근을 유도하는 효과적이고 명확한 안내물의 설치는 그러한 인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박물관의 제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은 이용자 친화적인 박물관의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즉 박물관의 위치 정보, 찾아오는 방법, 개관 시간, 시설과 서비스의 내역, 현재의 전시 활동, 미래의 프로그램과 소장품에 대한 정보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유물 정보가 있다면 그것이 왜 그러하며 접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5. UNESCO, The Inclusive Museum, 2008.

효율적이고 연계적인 학습 경험 제공

박물관 이용자의 ‘학습’이라는 범주 안에서 보면, 전시, 연구, 교육 등 박물관의 여러 사업은 이용자에 대한 학습 서비스이다. 따라서 박물관은 자료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소장품을 전시해서 소장품과 관객들의 소통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유물의 전시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관객과의 소통의 방법일 뿐이다. 이러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여러 보조 장치들, 즉 설명 카드, 패널, 팸플릿, 오디오 가이드, 가이드 투어, 정보 지도, 체크리스트 등은 박물관의 궁극적인 목표인 학습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특정 전시물의 전시를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각종 소통 수단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경험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소규모 박물관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정식화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운영하는 국립 박물관은 소장품의 해석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이를 여러 박물관에 보급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연구 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박물관은 전시 중이거나 수장 중인 소장품과 그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즉 유물에 대한 열람 서비스, 가이드 투어, 학교 또는 그룹 세션, 유물 도록, 온라인 컬렉션 등의 접근을 통해 이러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수장고에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른 기관에 유물 대여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자원을 개발하며, 각종 학습 자료의 제작, 특별전 활성화도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이다.

특히 지역 국립 박물관은 지역 내 박물관계 전체에 대한 의무가 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각급 박물관에 대한 전문가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소장품의 연구 지원에 필요한 수준의 학예직원의 학문적 수준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국제적 수준에서 또한 학계에 대한 국립박물관의 일정한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아울러 박물관은 소장품에 대한 학습 동기를 효율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학습 및 탐색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모든 박물관 직원에 의해 공유되어

야 한다. 이러한 철학은 구체적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학습 환경을 박물관 내에 조성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각, 청각, 촉각 등의 학습 스타일은 사용자의 연령, 능력 등 사용자의 모든 수준에 맞추어진 연계적인 학습 경험에 바탕을 두고 선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 경험의 촉진과 효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구축이다. 이제 박물관은 시민사회와 따로 존재하는 문화기관이 아니라 지자체, 학교, 연구회, 문화예술 NGO, 전통문화보존회, 종교 기관, 자선단체, 성인학습센터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학습 경험의 확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박물관의 전시장, 강당, 세미나실, 도서관 등 시설이 학술, 문예,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사진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치는 시민들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물관의 콘텐츠가 그저 과거에 대한 학습이나 추체험에 활용되는 데



그림 3. 특별전, 진주의 미술사적 정립을 위한 그림들의 짧은 기록

6. 국립진주박물관은 2022년 (사)진주목문화사랑방이 기획한 <회화소록: 진주미술사 정립전>의 개최를 위한 전시 공간을 제공했다. 또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과는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을 공동 개최했다.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이 남긴 유물이나 흔적에는 시공간을 넘어선 삶의 보편성이 녹아 있기에,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박물관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박물관 운영진만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박물관 운영과 활동에 좀 더 깊이 간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22년 국립진주박물관이 유치한 특별전 <회화소록: 진주미술사정립전>은 진주지역 시민사회의 문화 역량이 잘 드러난 사례였다. 지역의 한 시민문화단체(사단법인 진주목문화사랑방)가 자체 기획한 수준 높은 전시를 국립진주박물관의 전시 공간에서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고민하는 박물관 측에도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국립 박물관 내의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국립박물관은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문화예술 활동 조직의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반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립 박물관이 전문가나 전문 동호인 그룹과 협업하여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포럼으로서의 박물관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박물관이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만족하는 것이다. 박물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관객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즉 전시나 교육, 그리고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나 모니터링, 자문위원회를 통해 관객의 목소리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대화해야 하는 것이다.

소통의 대상은 정보만이 아니다. 모든 박물관은 소장 자료의 전시와 교육을 통해 일정한 ‘가치’를 발현하고 주장한다. 가치의 증립은 박물관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시대가, 또 그 사회가 함께 추구하는 일정한 가치를 옹호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박물관이 그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주창하고 선도해야 할 수도 있다. 글로벌 시대의 한국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다민족 사회에서 공존의 문제, 다양성의 문제, 다수와 소수의 공존 문제, 중앙과 지방의 문제, 보편과 특수성의 균형과 조화 등 여러 가치에 대한 논의와 소통의 장으로서 박물관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대박물관이 전시품을 찬탄하는 일종의 신전이였다면, 이제 21세기의 박물관은 생각과 생각이 만나 소통하는 포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박물관을 찾아 전시를 관람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에 전시된 여러 유물을 스스로 살피고 자기 생각을 키우는 방법, 그래서 박물관과 그 소장품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나아가 박물관을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만나는 곳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스스로가 면밀한 관찰과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유물을 만든 사람, 사용한 사람, 또 그들이 속해 있던 시대의 생각과 삶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직접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박물관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곳에 머물 수 없다. 박물관이 제시한 지식이 더 이상 의심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2년 국립진주박물관의 특별전 <병자호란>이 주목된다. 이 전시는 한국 사회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패전한 전쟁을 다룬 전시였다. 이제까지 한국의 공공 박물관이 다루기 어려웠던 주제였지만, 북방의 청나라로부터 당한 패배와 고난의 역사를 한국의 대중들과 함께 직시하려는 노력은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17세기의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나라의 운명을 두고 했던 많은 고민들이 그저 그 시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립진주박물관은 특별전 관람을 관람객들에게 국제질서의 냉혹함은 21세기의 오늘날에도 엄연한 현실임을 일깨우고, 나름의 대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소통이 중요한 만큼 그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다. 소통의 수단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7. Duncan Cameron, 1974, "The museum: a Temple or the Forum", *Journal of World History* 4(1), 1974.



그림 4. 병자호란 특별전

주지하듯이 말과 글이다. 박물관은 말과 글을 구사하는 데 능숙해야 한다.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말과 글로 전시와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잘 읽고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부단한 연습으로 말과 글을 연마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외국어는 점점 더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다. 박물관에서 생산한 유효한 지식과 생각을 영어나 주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파급력은 한국어에 비해 훨씬 클 것이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해진 온라인 매체는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고객의 수를 늘리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인터넷 누리집이나 블로그, 소셜 미디어 서비스 등은 박물관이 소장한 자료와 정보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일거수일투족을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매체들이다.

이러한 온라인 매체에 대한 관심은 오프라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국립진주박물관은 2020년부터 매년 전통 무기와 전쟁 관련 역사를 다룬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3년 8월 말 현재 국립진주박물관 유튜브 채널의 총 조회 수는 805만 회에 달하며, 앞서 언급한 병자호란 특별전 관련 콘텐츠들의 총 조회 수도 341만 회에 이른다. 이러한 성과는 박물관 내에서의 오프라인 전시 관람에 못지않게,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보급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보급에서는 이용객과의 소통에서 상당한 장점이 확인된다. 실제 박물관 관람을 경험한 관객의 반응은 ‘고객의 소리’라는 비활성화된 통로 이외에는 제시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매체로부터는 실시간으로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심치 않게 이용자 사이의 토론도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유튜브 영상 시청자들이 적는 이처럼 많은 수의 댓글은 박물관 콘텐츠에 대한 평



그림 5. 조선총잡이 시대, 국립진주박물관 유튜브 콘텐츠

가와 비평의 기능에 더해 이용자 간의 토론장으로서도 활용되고 있어서, 향후 박물관과 대중의 소통 장으로도 유용한 공간이 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온라인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전에 없이 요구된다. 그런데 온라인 매체 활용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이 매체들 속에 담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 각종 콘텐츠를 개발, 생산, 갱신, 보급하려는 노력이고, 이를 위해서는 탄탄하게 축적된 소장품 관련 정보가 전제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맺음말

과거의 삶과 사회를 연구하고, 또한 다른 지역의 삶과 사회를 연구하는 것은 시공을 달리하는 사람과 그들이 이룬 사회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남긴 유물은 현재를 사는 우리와도 이어져 있고, 그것이 박물관이 여러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이유인 것이다. 특히 같은 공간을 살았던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은 오늘날 나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그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유물을 각별히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일 것이다.

여러 시공 속 인간사회의 의미 있고 값진 경험의 물질적 증거들을 수집하는 박물관에는 다양한 문화 활동의 흔적과 증거가 축적되어 있다. 곧 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이데올로기와 신념, 학문, 문학, 미술, 과학기술 등 다양한 경험의 물질적 증거들을 축적한 성과는 삶과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기반 위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분명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박물관이 주목하는 것은 여러 빛깔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 속의 삶이다. 그 수많은 삶이 각자 저마다의 무늬로 색깔로, 또 다른 삶들의 무늬나 색깔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빛나는 것 그것이 문화일 것이다. 박물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시공의 문화와 삶을 기억하면서, 저마다의 인생을 기리고 그들마다의 운기 있고 향기 나는 삶을 응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